다산포럼

대북 식량 원조는 '인간에 대한 예의'

성 염
전 서강대 철학과 교수

필자가 특임 공관장을 지내던 2005년 4월 2일, 요한 바오로 2세가 85세로 서거했다. 그의 장례에 유럽 전역에서 무려 400만 명의 청년들이 문상하러 로마(상주 인구 400만)로 몰려오자 몇몇 언론은 사태를 분석하는 데 흥미를 보였다. 1978년에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 발표한 교황직 백서 '인간의 구원자'(1979년3월4일)에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그 깊은 경탄을 일컬어 그리스도교라고 일컫는다"(10항)라고 한 그리스도교 정의는 젊은이들에게 종교 신앙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해 주었다고 한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1965년 사목헌장)라고 선언한 가톨릭 교회는 '정의 구현이 곧 복음 선포'라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2014년(8월14~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에서도 '세월호'라는 말 한마디 없이도, 서울공항에서, 대전에서, 광화문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손잡았으며, 로마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교황이 달고 있던 세월호 배지를 시비하자 '타인의 고통에는 중립이 없습니다'라는 명답을 남김으로써 "프란치스코의 한국 방문은 세월호로 시작하여 세월호로 끝났다"는 평까지 나왔다. 이듬해 4월16일에는 한국의 모든 가톨릭 교구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미사를 드리기 시작하여 금년까지도 공식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한데 종교인들이 이처럼 표하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짓밟은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발언은 인류 사회 앞에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차명진)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정진석) "맞아요, 불쌍한 아이들 욕보이는 짓들이죠."(안상수) "시체장사 그만하라."(김문수) "세월호 가족 4억 6천만 원 벌었다, 양평해전 전사자도 겨우 3천만 원 받았는데."(나경원) 필자가 장탄식을 금치 못한 것은 저런 발언으로 언론에 주목받은 인사들이 하나같이 '아셀라'(나경원), '여호수아'(차명진), '사비오'(정진석), '베드로'(안상수), '모세'(김문수)로 불리는 가톨릭 신자들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 뒤이은 하노이에서 실패로 끝나 버린 북미 간 제2차 대화가 어떻게든 이어지도록 애쓰던 문 대통령은 지난 5월7일의 통화에서 대북 식량 원조에 대한 트럼프의 양해를 얻어 냈다. 북한의 작황과 기아 위기는 국제 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어 몇몇 유럽 정부가 이미 식량 원조를 감행해 왔고, 특히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북핵 문제로 꼬여 버린 북한의 기근과 식량 문제에 각별히 마음을 써 왔다. 필자가 그곳에 재임하고 있던 때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2006년11월13일)

그 직후 베네딕토 16세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당사자들에 대해 존중하는 가운데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국제 사회가 가장 취약한 백성들에게, 특히 북한에 있는 백성들에게 인도주의적 원조를 추구하고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고 일본 정부에 호소하였다. 이듬해 교황청 주재 외교 사절단과의 신년하례식(2007년1월8일)에서도 "한민족을 화해시키고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대화는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돌아갈 인도적 지원을 좌우하는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며 조건 없는 식량 원조를 강조했고, 한 달 뒤 교황을 예방한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가장 취약한 백성이 인도적 원조에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청와대의 인도주의적 정책에 대해서 박지원(요셉) 민주평화당 의원은 "북한의 발사체가 무엇이든 그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탄도미사일 발사가 신뢰를 깰 수준은 아니라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지구상에서 한미 정상의 대북 정책을 모든 나라가 지지하지만, 유일하게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만 강경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섰다. "미사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이 식량 지원이라니…. 참으로 누구의 대통령인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러한 나 대표의 말은 그가 믿는 가톨릭 신앙에도, '아셀라'라는 세례명에도 참 안 어울렸다.

기 고

고악기로 듣는 고음악

김 종 섭
리음&아트컴퍼니 대표

"'줌페'의 스퀘어 피아노가 밑그림이라면, '안드레아스 스타인'의 포르테 피아노는 스케치에 음영을 넣은 데생입니다. '에라르'의 포르테 피아노는 마침내 색을 입힌 리듬의 캔버스입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고음악 연주자 미하엘 찰카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회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 같은 포르테 피아노이지만 성격이 다른 세 대의 옛 피아노를 한 무대에서 감상하다 보면 여러 그림들이 떠오른다. '줌페'가 흑백 스케치로 유명한 폴 엘뢰의 '귀부인'이라면, '스타인'은 달걀과 아교로 섞어 만든 중세 시대의 템페라 물감 그림이고, 에라르는 피카소의 청색 시대 그림들만큼 신선한 색채감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색채를 더듬어가면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총천연색 유화가 된다.

고악기로 음악을 감상하면 옛날 악기만 만나는 게 아니다. 영화 '이프 온리'의 폴 니콜스처럼 시간의 벽을 뚫고 본인들이 연주하던 그 악기와 함께 우리 앞에 불쑥 현몽하기도 한다. 예컨대 요한 밥티스트 반할(1739~1813)이라는 체코의 작곡가와 칼 필립스 엠마누엘 바흐(1714~1788),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진짜 모차르트, 폴린 바아도르(1821~1910), 스페인의 열정을 달고 살았던 마누엘 데 파야(1876~1946)도 만날 수 있다.

악기는 소리와 인간의 '매개체'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도 소리의 매개체인 악기가 시원찮으면 작곡가가 의도한 만큼의 감동을 청중에게 선물할 수가 없다. 인간은 호모 쿨투랄리스(Homo culturalis), 즉 문화적 동물이다. 음악 예술 역시 문화이기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좋은 소리,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 수천 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문명이 그렇듯이 피아노가 발전하는 과정에는 시대적 환경과 다양한 요소가 녹아 있다. 때문에 고악기를 탐색하다 보면 악기의 구조 변천사만이 아니라 악기 속에 담긴 사회 환경적, 역사적 요소도 읽을 수 있다. 최초의 건반 악기인 하프시코드와 클라비코드는 소리는 아름다우나 대중을 상대로 하기에는 음량이 작았다. 그러다 탄생한 게 1709년 크리스토포리가 제작한 포르테 피아노다.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 소음 속에서 '신호음'을 알리려면 소리는 더욱 증폭돼야 하는 시대였다.

포르테 피아노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영국에서 개발된 스퀘어 피아노는 당시 연 수천대가 팔렸을 정도였다. 도시가 산업화되면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반면 여성들은 주부로 묶이게 된다. 이들 여성들을 위해 남성들이 앞다퉈 피아노를 구입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 피아노와 함께 인기를 끌었던 악기는 '하프'였다. 휴대가 용이한 현악기보다 피아노와 하프처럼 집안에 붙박이처럼 고정된 악기를 구입해야 여성들이 집안 일을 하다가 애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음악을 감상하는 일은 고악기 위에 더께처럼 쌓인 두터운 장식을 벗기는 작업이다. 그 장식들이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창조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식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소리의 근본을 덮어버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고악기로 고음악을 듣는 일은 그 장식을 끌과 망치로 떼어내고 음악의 시원과 근본을 찾는 일이다. 악기란 본시 자연을 모방한 소리이기에, 음악을 듣는 일은 자연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고악기로 고음악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미술적인 시각에서 고악기가 어떻게 변천했는지 체험할 수 있고, 바로크는 물론 고전과 낭만 초기의 위대하고 순수한 작곡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나아가 수백 년 전의 고악기 속에 담긴 자연을 탐미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시공을 초월해 이토록 아름다운 고음악의 세계에 흠씬 취할 수 있는 음악회가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고장 '광주'에서 열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오는 20일,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재단의 월요 콘서트로 열리는 고음악 음악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고음악을 고악기로 듣는 일, 현대적인 페인트를 벗기고 원목을 찾아 그 향기를 되찾는 일이다. 컨베이어벨트가 아닌 장인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사람 냄새를 맡는 일이기도 하다. 모쪼록 타 지방 문화재단에서는 보기 드문 이번 음악회에서 고악기에 새겨진 장인들의 땀과 열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청춘 톡·톡

인터넷 익명성 이대로 좋은가

박 인 하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2학년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의 사용은 사람들의 일상이 됐다.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정보 교환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 속의 수많은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정보가 넘쳐나고 불법적인 정보 유출 등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의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신뢰성 없는 글이 빠르게 실시간으로 퍼져나간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가짜 뉴스와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익명성을 무기 삼아 악용하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사이버 세상에서 자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에 대해 욕설, 인신 공격 등을 가한다. 이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의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학생의 필수 앱이라고 불리는 '에브리타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유명한 앱인 만큼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익명으로 글과 댓글을 작성한다. 익명으로 작성할 수 있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글에서 학생들은 정보를 얻게 되고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한다.

한 가지 예로, 대학교에 입학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는 신입생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학생들이 있다. '학교 홍보 대사는 무슨 일을 하고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 있었다. 그 글의 댓글엔 'x', '군기 엄청 세고 하는 것도 없다던데' 이러한 댓글들이 익명으로 달렸다. 또 '홍보 대사 군기 잡나요?'라는 질문의 댓글에는 '홍보 대사=졸업과 동시에 치킨집 취업', '굳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홍보 대사 해봐야 시간만 버려요' 이러한 댓글이 달렸다.

현재 홍보 대사 활동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댓글이었다. 댓글로 인해 생긴 허위 사실은 소문이 되어 퍼지게 돼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다. 홍보 대사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쌓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긍정적 이미지를 쌓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건 홍보 대사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부정확한 댓글로 인해 홍보 대사들은 그동안 애써 쌓아온 이미지를 한순간에 잃고, 그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홍보 대사는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일부분일 뿐, 더 큰 네트워크상에서는 흔히 말하는 '마녀사냥'이 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음을 이용해 무분별한 비난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특정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지난 몇 년간 있었던 국가적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퍼져 수많은 논란을 쌓아오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댓글 조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기사는 업로드 후에 추천을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이 보이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주도하게 된다. 베스트 댓글과 다른 의견은 비추천으로 인해 묻히게 되고, 댓글 조작에 의해 여론이 형성돼 버린다. 댓글 조작에 의한 선동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자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된다. 심한 경우,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줌과 동시에 인터넷을 활성화시키고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이유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가볍게 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여러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현재 네트워크상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 척 여론을 조작할 수 있어 유언비어가 빠르게 퍼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명제를 도입하면 표현의 자유를 잃는다고 하지만 익명으로 말을 해야만 자유고, 실명을 달고 말을 하면 자유가 아니게 되는 걸까? 실명제를 도입하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실명제가 도입돼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社 說

흑산공항 주민 숙원 이번엔 풀릴 수 있기를

당초 2020년 개항 예정이었던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지난 2016년부터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5년째 지지부진한 흑산공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신안군과 전남도가 공항 개발 면적만큼 국립공원 대체 지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흑산공항으로 개발되는 면적만큼 환경부가 가거도, 만재도, 하태도 등의 일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안군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전남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올 하반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여기에 그동안 흑산공항 건설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가운데 4명이 지난 1일자로 교체된 것도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 당연직 10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가 민간위원 8명 중 4명만 교체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흑산공항 건설 반대 입장이 계속 이어질 여부는 불투명하다.

2015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흑산공항은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소형 공항을 오는 2021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섬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국가 항공 정책에 반영됐으며 정부가 항공기 안전이나 경제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특히 서울에서 흑산도를 가려면 꼬박 7시간이나 걸리는데, 흑산공항 건설은 도서 지역만이 겪어야 하는 교통난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철새 서식지 파괴 등 환경적 측면에서는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철새보다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이번만큼은 잘 풀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당 5·18 진상 규명 진전된 조치 취해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온다고 한다. 하지만 5월 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저지 방침을 밝혀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오는 18일 5·18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선출된 한국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15년 새누리당(옛 한국당) 김무성 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홍준표 당시 대표는 불참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정진석·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각각 자리했다.

황 대표의 광주 방문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위해 지난 3일 송정역을 찾았다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지 보름만이다. 이와 관련 5·18 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5·18 왜곡 처벌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5·18 묘지 참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1 야당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광주'는 착잡하다.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데다 진상조사위 구성도 지연시켜 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한국당이 '보수 결집'을 위해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고 민심을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려면 그에 앞서 진상 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달라는 게 광주의 목소리다.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의 조기 출범을 위한 위원 재추천 등 먼저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문빠'와 '달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문빠' '달창'이라 지칭했다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문빠는 문 대통령을 뜻하는 '문'과 열렬한 지지자를 뜻하는 '빠'를 합친 말이다. 달창은 '달빛 창녀단'의 준말이다. 극우 네티즌들이 문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달빛 기사단'을 속되게 부르는 은어로 여성 비하의 의미도 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 논란을 일으켜 사과드린다.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유래를 모르고 썼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모르고 썼다면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체한 것이라면 교활하기 그지없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은 언어를 신중하게 다뤄야 하지만 나 대표의 해명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사실 '문빠'는 과거 '노빠'(노무현 전 대통령 열렬 지지층)의 영향으로 정치권에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지만 '달창'이라는 단어는 인터넷 은어로서 대중적 인지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신조어는 인터넷 시대에 맞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축약'이라는 효율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쌩얼'(화장을 하지 않은 맨얼굴), '완소'(아주 소중한)', '훈남'(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남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혐오'를 부추기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불특정 다수를 넘어 특정 계층과 세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로 분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외퀴'(외국인+바퀴벌레), '틀딱'(큰소리 치는 노인), '김치녀'(물질적인 것을 밝히는 여자)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지지층 결집을 위해 신조어를 남발한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비유한 '문슬람', 나경원 원내대표와 아베 일본 총리를 합친 '나베' 등이 거론된다. 정치적 성향을 좀비에 빗댄 '좌좀'과 '우좀'도 인터넷상에서 자주 쓰이는 신조어다.

신조어는 그 시대의 자화상이다.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인터넷과 SNS에 혐오적 표현의 삭제 의무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